

용인생태습지, 생태친화 공간으로

익산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선정... 3년간 85억원 투입 · 2026년까지 지방정원 조성 박차

익산 용인생태습지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친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도비 약 42억 원을 포함한 8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생태관광 사업은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유하고 환경·기능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자연생태적 가치 △생태적 시설 설계 △환경·지역문화의 이해 △지자체 추진의 의지·기반 △보전·관리 전략 등의 평가 기준에서 최



고득점을 얻어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원해 주민이 함께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함

께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용인생태습지의 아름다움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원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사업비 60억 원(도비 30, 시비 30)을 투입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용인생태습지가 가진 우수한 환경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생태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서식지이자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길을 따라 잘 정비된 산책로와 편

익산시청 펜싱부 권영준 선수, 체육상 '대상'

2024 익산시 체육상 시상식 열려... 개인 69명 · 단체 6팀 수상

올해 익산시 체육을 빛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익산시체육회는 지난 6일 웨스턴 라이프호텔서 수상자와 가족, 체육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익산시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기원 행사'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익산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익산시 체육상 대상은 익산시청 펜싱부 권영준 선수가 받았다. 권



선수는 2021 도쿄올림픽과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올해 전국체육대회의 남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으로 익산시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부문별로 진행된 시상에서 △익산시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국회의원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지도자상 △공로상 △생활체육공로상 △생활체육클럽상 △단체상이 수여돼 개인 69명과 단체 6팀이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표창은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 오임선 익산시의원, 정성환 익산시교육장이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상임위, 내년도 본예산 15억1330만원 삭감

군산시 2025년도 예산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총 15억 1,330만 원이 삭감됐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6일 동안 세심한 예산 심의를 거쳐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6,547억원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5억1,330만여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소행사 9천만 원, 군산 중곡사무소 운영 7,000만원, IFSC 클라이밍 월드컵 4억원 전액, 서군산북한체육센터 체력측정 장비 구입 8,200만원 전액,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공연용 음향콘솔 구입 1억 5,000만원 전액 등 15개 사업 예산 9억3,061만원을 삭감했다.

경제건설위원회도 농공단지 활성화 물품비 지원사업 8,166만7,000원, 도로유지관리비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5,000만원, 농촌고용인력증가센터 운영 4,000만원 전액,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2억5,200만원, 제2회 군산농담보리축제 6,800만원 등 10개 사업 5억 8,272만 7,000원을 삭감했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과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장은 "2025년도 본예산은 군산시 모든 현안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사성 경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경감예산은 최소화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삶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정기회 개최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추진 사항 · 내년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추진계획 보고 · 강의 등

군산시는 지난 6일 군산시 청년들 청년강당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언·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현재 항만물류 분야 교수, 관련 전문가, 항만 관련 기관 단장, 지방의회 의원 등 총 20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2024년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추진 사항 △2025년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추진계획 보고 △평택대 정수현 교수의 '항만정책이 패러다임의 변화 : 항만과 도시의 조화' 강의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군산시는 위원들에게 2024년 추

진된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전략 수립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항만관계자 역량강화사업 △군산시 이·통장 현장 교육 등이 있다.

보고를 마친 시는 2025년에도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평택대 정수현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환경적 측면에서 항만의 주변 지역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군산새만금신항의 군사 관할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항만정책은 단순히 항만이 아닌 그 주변 지역과 함께 이루어진 항만도시로서 발전해야 하며 항만과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의의

마무리했다.

회의를 마친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새만금신항은 전기 · 수도 · 통신 ·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이 예상된다"라며, "인접 지역의 환경 관련 문제도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더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시 육도면 무너도 · 신시도 ·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육도면 두리도와 연결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어 군산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 배후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항만으로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8대 익산공무원노동조합 임원선거 진행

위원장 구본권 · 사무총장에 김광덕 주무관

제8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구본권 주무관(건설과), 사무총장에 김광덕 주무관(바이오헬스)이 각각 당선됐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선거 결과 전체 조합원 1,450명 중 1,159명 투표에 참여했으며(투표율 79.9%) 651표(56.2%) 얻은 기호 1번 구본권 · 김광덕 주무관이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당선인들은 지난 3년간 제7대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



한 노조, 단결하는 노조'라는 가치를 가지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어간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창업지원단, 창업협력 체제 구축 위해 '맞손'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업무협약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지석근)이 지난 4일,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함께 창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지식근 창업지원단장,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김남기 단장을 포함한 관계자가 자리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



시가 지원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성장을 위해 △6차산업 우수

창업자 발굴 및 사업 연계 협조 △성장도약을 위한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협력 운영 △양 기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대내외 창업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립군산대 지식근 창업지원단장은 "6차산업 우수창업자 발굴 및 사업 연계 협조, 양 기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진안군과의 창업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친환경 녹색도시 3년 연속 입증

2024 전북자치도 자원순환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친환경녹색도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업무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재활용 추진실적, 폐기물 처리역량 등 청소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익산시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생활용품 재활용 촉진, 재활용 실천 운동 등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를 증진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공형 콜택시 도입 미온적인 이유와 배경은?"

서동완 군산시의원, 시정질문서 집행부에 질의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지난 6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형 콜택시 도입에 미온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공형 콜택시란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발점이 됐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전국 160개소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2015년,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5분 발인을 통해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 운영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도입을 미루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약 1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오직 군산시만 공공형 콜택시가 미도입된 지자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 군산시 외곽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금



까지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한다"며 "현행 콜택시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냐"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공공형 콜택시 도입을 미루는 주요 이유로 대중교통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 행복콜버스가 이미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현재 군산시에 행복콜버스는 총 8대가 운행 중이고 연내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11대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의문이 든 게 현재 군산시에서는 지역의 버스업체 2곳에 복지노선 손실보전금 및 재정지원으로 지난 10년 동안에만 약 1,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아 예산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왔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형 콜택시를 의회에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콜택시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공공형 콜버스와 병행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향후 공공형 콜버스를 축소하고 공공형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 군산시 관내 농어촌 지역은 교통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며 군산시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 나아가 지역 전반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 교육 등 각종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해야"

군산시의회 5분 발언서 제기... 빈집 활용 방안도 제안

6일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 3명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윤신애 의원,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촉구

먼저, 윤신애 의원은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모든 학부모와 학생을 100% 만족시키는 중학교 배정 방식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 방향의 전환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세자 의원, "군산시 경로당 식사 지원 개선해야"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경로당 식사 지원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세자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군산시가 경로당



식사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노력한 끝에 이 법률을 마련했으니, 지방자치단체도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식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자 의원, 군산지역 빈집 활용 방안 제안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시급,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빈집은 지역 소멸의 위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시각을 바꿨다 보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재구성 위원장에 최창호 의원 선출



군산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선임을 의결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됐다.

이번 최창호 의원(사진)이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은 지난 11월 이한세 의원의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직 사임에 따른 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이 새로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통해 최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직을 사임한 윤세자 의원을 대신해 박경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창호 의원(위원장), 박경태(부위원장), 우중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광일 의원, 한경봉 의원, 윤세자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이다.

/군산=이재춘 기자